

Review Article

한의학 교육의 연구 동향 : 국내외 연구를 바탕으로

김서연^{1§}, 이도현^{1§}, 정혜인^{2§}, 김경한^{3,4,5}, 이승희^{4,5*}

¹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²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³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⁴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⁵서울대학교 대학원 휴먼시스템의학과

Trends in the Study of Korean Medicine Education : Based on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search

Seoyeon Kim^{1§}, Dohyeon Lee^{1§}, Hyein Jeong^{2§}, Kyeong Han Kim^{3,4,5}, Seung-hee Lee^{4,5*}

¹College of Korean Medicine, Woosuk University

²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³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Korean Medicine, Woosuk University

⁴Department of Medical Education, College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⁵Department of Human System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rends in Korean medical education research.

Method: We searched Korean Medicine Education research in 4 domestic and 4 international databases. The studies were analyzed with journal, year, keyword and detailed topic, word frequency in research context, divided into four categories: basic Korean medicine, clinical Korean medicine, medical humanities, education.

Result: 128 Korean studies and 30 International studies, total 158 studies, published from 1993 to 2024 have been selected. Research on Korean medicine education has been consistently published every year since 2003, by 61 journals. The period when the most papers were published was 2020, with 16 papers. Journal of Physiology & Pathology in Korean Medicine published a relatively large number of studies, with 19. Among the keywords divided into 4 categories according to Institute of Korean Medicine Education & Evaluation, studies related to 'basic medicine' were the most with 45 cases. When classified into detailed topics, there were 40 papers related to 'subject', and 21 papers related to 'awareness'.

Discussion and Conclusion: The study suggests that Korean medicine education method and curriculum should be developed. As educational research and method progresses, the corresponding curriculum has to be improved and applied to the field. This study would contribute to the foundation of Korean medicine education.

Key Words : Korean Medicine education, curriculum, Teaching-Learning method, Research trends

서론

의서를 읽고 암송하는 강독 형식의 전통적인 한의

학 교육과정은 대한제국 시기 이후 근대식 교육의
형태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¹⁾ 고등교육체제 아래
표준화된 한의학 교육은 1948년도에 '동양대학관'에

• Received : 19 April 2024

• Revised : 2 May 2024

• Accepted : 7 May 2024

• Correspondence to : Seung-Hee Lee

Department of Medical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103 Daehak-ro, Jongno-gu, Seoul 03080, Korea

Tel : +82-2-740-8406, Fax : +82-2-741-1186, E-mail : lshcho@snu.ac.kr

§ These authors contributed equally to this work.

서 시작되었다. 이후 1964년에 경희대 한의과대학의 전신인 동양외과대학이 예과 2년, 본과 4년의 교육 과정을 운영하기 시작하며 현재 한의학 교육의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²⁾ 이후 이 교육 체계를 바탕으로 총 11개의 한의과대학이 설립되었으며, 2011년도에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이 설립되어 운영 중이다.

기존에는 한의과대학별로 자체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으나, 2004년 이후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이 설립되며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와 평가 인증 기준을 개발하였다.³⁾ 이 인증 기준을 바탕으로 한의학 교육 평가 인증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1주기 한의학교육평가인증은 2010년 부산대에서 시범으로 운영되었다. 이후 2011년부터 정식으로 시작되어 기초한의학 관련 분야설정, 임상 실습 시간, 대학부속병원, 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OSCE)와 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CPX) 같은 임상종합평가 등의 인증기준을 제시하였다. 2주기는 역량 기반 한의학교육을 목표로 하여, 2017년에 실행되어 2022년에 마무리되었다. 현재는 한의학교육인증기준(KAS2022)이 제시되어 4개 대학이 인증평가를 받았다.⁴⁾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은 2015년부터 한의사 역량 모델을 제시하였는데, 한의대학교 졸업생, 혹은 한의사 국가고시 응시자에게는 단순히 의료인으로서의 학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임상 진료, 경영 능력 등의 전반적인 사항들이 요구된다.⁵⁾ 이러한 한의사 역량 모델에 맞추어 단순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과정에서 나아가 역량 중심의 성과 위주의 교육과정으로의 개편이 진행되고 있다.⁶⁾

그러나 위의 한의사 역량모델은 다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편이며, 변화하는 교육과정도 평가인증이란 제도 아래 외부의 요구로 인한 표면적 형식에 그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⁷⁾ 더불어 한의대학교 내 학부생들의 만족도 관련 사전 연구에서도 ‘졸업 후 임상 진료가 어려운 교과과정 구성’ 및 ‘강의 내용 및 방법의 문제’가 불만족의 가장 큰 원인이

라고 밝히며,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하기도 하였다.⁸⁾

2023년 발표된 광의 연구에 따르면⁹⁾, 2003년 이후로 한의학 교육에 관련된 연구는 총 61건으로, 적지 않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한의학 교육 관련 연구의 단어 빈도 및 가중치 분석 결과를 통해 현재 확인된 연구의 관심 주제 및 요소를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연구는 연구 대상 선정의 한계로 인해 한의학 교육 연구의 전반적인 동향을 파악하기 힘들며, 해외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지 않아 교육과 관련된 모든 연구가 분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의학 교육’과 관련하여 발표된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과거와 현재의 한의학 교육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고, 한의학 교육에 관한 차후 연구의 방향성과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국내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실시하는 한의학 교육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했다. 가능한 많은 연구를 검색하기 위해 출판 연도, 연구 형식이나 논문에서 사용된 언어에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았다. 또한, 한의학 교육 관련 연구 중 해외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들도 수집하기 위해 국내외 데이터베이스를 모두 활용하였다. 검색어로는 ‘한의학’, ‘교육’ 관련 키워드를 사용해 한의학 교육과 관련된 연구들을 최대한 수집하고자 하였다.

2. 문헌 선정 및 배제기준

선정 기준은 국내 한의과대학,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 내에서 진행된 한의학 교육프로그램과, 국내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학습법, 지도법 및 이와 관련된 연구였다. 주

제와 관련 없는 것, 한의학이 아닌 중의학 등과 관련된 것, 학위 논문인 것, 인공지능에게 한의학 관련 기계학습을 시킨 것 등은 제외하였다.

3. 문헌검색

국내 논문 검색을 위해 학술정보서비스(RISS), 한국학술정보(KISS), 전통의학포털(OASIS), 과학기술 지식인프라(SCIENCEON) 총 4개의 데이터베이스에서 한의학 교육과 관련된 검색어를 사용해 진행하였다. 검색은 2024년 3월 18일에 시행하였다. 두 명의 연구자(SY.K, DH.L)가 상호 논의를 통해 설정한 '<전체> 한의학<한방>한의학<한의학대 and <논문명> 교육<학습>지도<학업>'의 검색식을 활용하였다.

해외 논문 검색을 위해 PUBMED, EMBASE, COCHRANE, China National Knowledge Infrastructure (CNKI) 총 4개의 데이터베이스에서 한의학 교육과 관련된 검색어를 사용해 진행하였다. 검색은 2024년 4월 3일에 시행하였다. PUBMED, COCHRANE에서는 "korean medicine" AND "education"의 검색식을 활용하였고 EMBASE에서는 ('korean medicine'/exp OR 'korean medicine') AND ('education'/exp OR education)의 검색식을 활용하였다. 또한 CNKI에서는 (SU='korean medicine'+韓醫學) AND (SU='education'+教育)의 검색식을 활용하였다.

4. 분석 방법

최종 선별된 연구를 대상으로 연도별, 학술지별, 주제별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및 정리는 Microsoft Excel(2016 version)과 Jamovi(2.3.28 version)를 사용하였다. 주제별 분석의 경우, 대표 주제와 세부 주제로 크게 분류했다. 대표 주제별 분석의 경우, 한의학교육평가원에서 정의한 용어인 '한의학기초', '임상의학', '의료인문학', '교육학' 항목을 사용했으며, 해당되지 않는 연구의 경우 '기타' 항목에 분류하였다. (Table 1) 세부 주제별 분석의 경우 모든 연구진이 수집된 연구들을 각자 분석하여 키워드를 제시했

고, 이 중 여러 번 제시되는 등 모든 연구진이 합의한 키워드를 세부 주제로 선정하였다. 세부 주제는 '교과목', '교육평가', '교육방법', '인식도', '방향성' 항목으로 분류했으며, 해당되지 않는 연구는 '기타'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세부 주제별 분석 시 다섯 항목 중 2개 이상의 주제에 걸리는 경우 중복하여 분류하였다. 분류 과정에는 2명의 연구자(SY.K, DH.L)가 참여했으며, 1명의 연구자(HL.J)가 검토를 진행했다. 또한 국문 제목을 대상으로 데이터 마이닝 및 분석 서비스 텍스트롬(www.textom.co.kr)을 이용해 단어 빈도 분석을 시행했다. 분석 대상은 명사이고, 영어 → 한국어, 숫자제외, 한의학(Korean medicine)이 '한'과 '의학'으로 인식되는 경우 등이 있어, 정제 과정에서 모든 연구의 제목을 연구자들이 확인해 누락이 없도록 했다. 이상의 5가지 분석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Table 2와 같다.

결 과

1. 분석대상

검색된 국내논문은 RISS에서 409편, KISS에서 394편, OASIS에서 109편, SCIENCEON에서 417편으로 총 1329편이었고 해외논문은 PUBMED에서 341편, EMBASE에서 366편, COCHRANE에서 17편, CNKI에서 33편으로 총 757편이었다. 이 중 중복으로 배제된 논문은 747편이었다. 제목이 연구 주제와 연관성이 없거나, 초록이 연관성이 없거나, 본문을 읽은 후, 총 1181건의 논문을 제외한 결과, 총 158편의 논문이 분석대상으로 선정되었다. (Fig. 1)

2. 연도별 분류

한의학 교육 논문의 연도별 분류 집계는 Fig. 2와 같다. 2000년 이전에도 관련 연구가 발표되었으며, 2003년부터는 매년 한의학 교육 관련 논문이 발표되었다. 2020년(16편)과 2021년(13편), 2018년과 2023년(11편)에 비교적 많은 수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또

한 2020년 이후로는 매년 지속적으로 10개 이상의 논문이 발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학술지별 분류

한의학 교육 논문의 학술지별 분류 집계는 Fig. 3 와 같다. 동의생리병리학회지(19편), 대한한의학회지 (17편), 대한예방한의학회지(15편), 대한한의학원전 학회지(11편)에서 비교적 많은 수의 논문을 발표하였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한국의사학회지(7편), Integrative Medicine Research (IMR) (7편), Education of Chinese Medicine (4편), 동서의학(4편), 동의신경정 신과학회지(4편), 혜화학회지(4편) 순서로 한의학 교육 관련 논문이 많이 발표되었다. (Fig. 3) 이외에도 경락경혈학회지(3편), 대한한방내과학회지(3편), 고등교육(3편), European Journal of Integrative

Medicine(3편)에서 한의학교육 관련 논문이 발표되었다. 또한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의료정책포럼, 연세의사학, 대한한의학방제학회지, 대한한방소아과 학회지,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대한본초학회지에서 각각 2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과학과 기술, 국제 교류와 융합교육, 대한기공의료학회지, 대한약침학회 지, 대한의학협회지, 대한침구의학회지, 대한한의학 보학회지, 동의·경산 한의학 학술대회지, 민족문화 논총, 보건과 사회과학, 보건과학논집, 보건의료산업 학회지, 상지한의논문집, 성격 및 사회심리학 계사판, 스마트미디어저널, 신경정신의학회지, 원광한의학회 지, 의사학회지, 중국어문학지, 한국의료윤리학회지,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한약정보연구회지, 현 곡학회지, 화법연구, The Journal of Alternative and Complementary Medicine, The Journal of Science

Table 1. Classification of Institute of Korean Medicine Education & Evaluation.

Section	Contents
Basic medicine	It is subdivided into basic Korean medicine and medical life science, and includes each subject of basic education according to local needs, interests, and traditions
Medical humanities	The field of learning basic and ethical qualities and attitudes that medical personnel must have. In addition to medical ethics and medical laws, it includes contents closely related to medical care in fields such as language, history, philosophy, ethics, sociology, law, business administration, anthropology, psychology, and art, that is, medical professionalism, communication
Clinical medicine	It includes internal Korean medicine, Korean Medicine Obstetrics and Gynecology, Korean Oriental Pediatrics, Korean Society of Oriental Neuropsychiatry, Korean Acupuncture & Moxibustion Medicine, Korean Medicine Ophthalmology, Otolaryngology & Dermatology, Korean Medicine Rehabilitation,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8 departments of Korean medicine specialists). It includes clinical subjects according to local needs, interests, and traditions, such as herbal acupuncture and Chuna medicine.
Education	It refers to a study that researches Korean medicine education in a modern scientific way and systematically organizes its achievements.

Table 2. A summary table of the five analysis methods

Method	Contents
Year	Analysis of the frequency of studies published from 1993 to 2024.
Journal	Analysis of the frequency of academic journals in which Korean medicine education papers have been published at least once.
Representative subject	Analysis of the Classification Method of Korean Medicine by the Institute of Korean Medicine Education Evaluation.
Detailed subject	Analysis of 158 papers according to 5 detailed topics obtained through consensus of all researchers.
Word frequency	The frequency of nouns was organized by analyzing the titles of all papers. (more than 5 tim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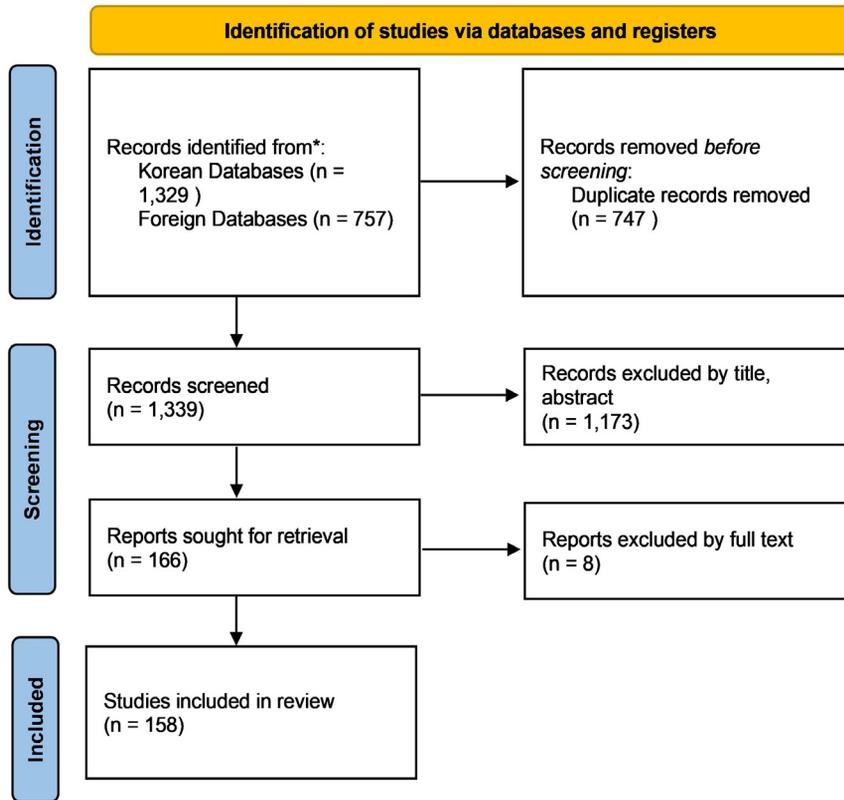


Fig 1. Flow ch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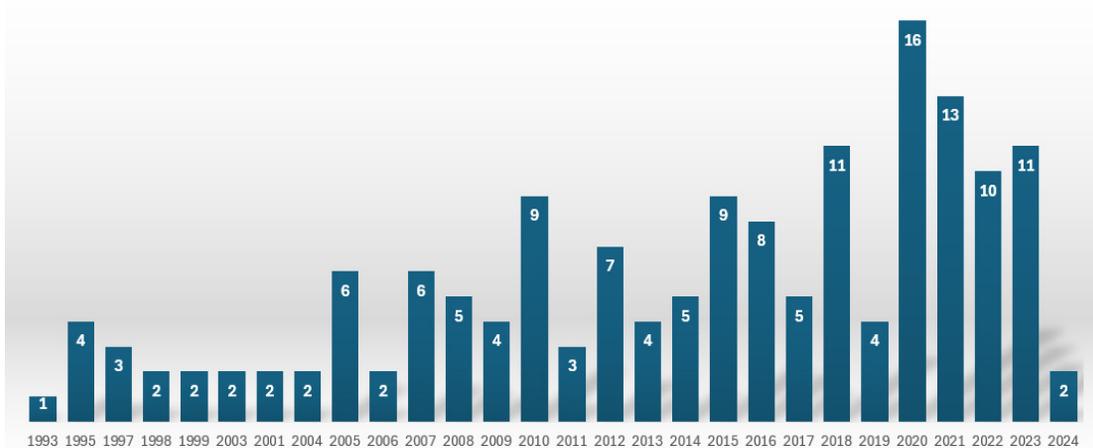


Fig. 2. Classification of papers on Korean medicine education by y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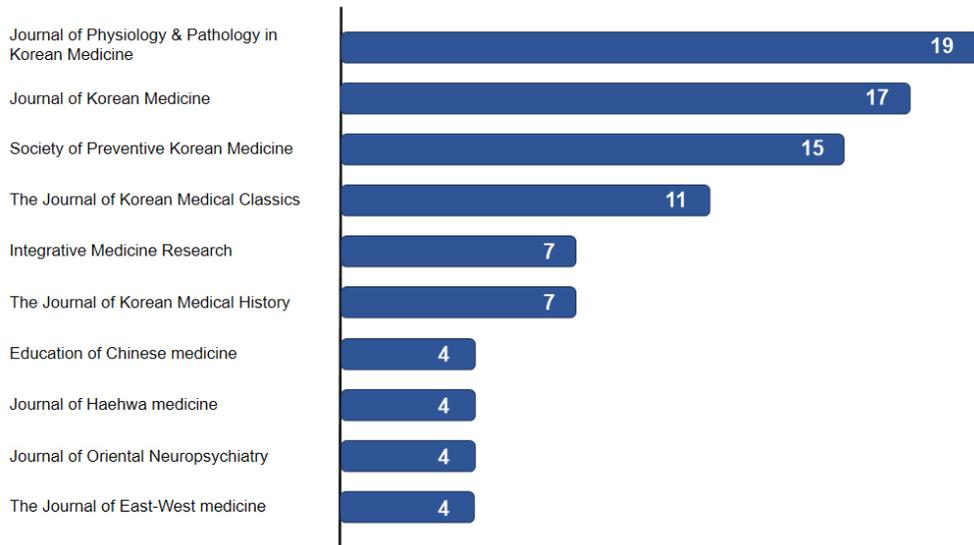


Fig. 3. Academic journals with articles on Korean Medicine education. (more than 4 papers)

& Healing (EXPLORE), Shanghai Journal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PLOS ONE, Northwest Medical Education, Journal of ZHEJIANG College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Journal of Medicine and Pharmacy of Chinese Minorities, Journal of Interprofessional Care, Journal of Chengdu University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Healthcare (Basel), Guiding Journal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and Pharmacy, Chinese Archives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China Medical Herald, BMC Medical Education, Asia-Pacific Traditional Medicine, Diagnostics (Basel) 에서 각각 1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4. 키워드별 분류

한의학 교육 논문을 한의학교육평가원에서 제시한 ‘한의학기초’, ‘임상의학’, ‘의료인문학’, ‘교육학’으로 분류한 집계는 다음 Fig. 4와 같다. ‘한의학기초’와 관련된 논문이 45편, ‘임상의학’과 관련된 논문이 32편, ‘의료인문학’과 관련된 논문이 11편, ‘교육학’

과 관련된 논문이 29편, 기타 41편이 검색되었다. ‘한의학기초’에 관한 논문은 해부학 교육의 문제점, 의학사 교육의 분석, 기초 의학의 교육 현황 등이 있었다. ‘임상의학’에 관한 논문은 임상실습교육 강화의 필요성 연구, 한방재활의학에서의 임상실습교육, 한방소아과학에서의 임상실습교육 등이 있었다. 의료인문학에 관한 논문은 의료윤리 교육의 현황, 인문사회의학 교육의 인식도 조사 등이 있었다. ‘교육학’에 관한 논문은 한의과대학의 한의학 교육과정에 대한 고찰, 한의학 교육의 현황과 제언 등이 있었다. 기타 논문으로는 한의학교육평가인증의 평가, 한의과대학 학생들의 교육만족도 조사, 해외 전통의학 교육과 한의학 교육의 비교조사 등이 검색되었다.

또한 한의학 교육 논문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진에서 제시한 세부 주제인 ‘교과목’, ‘교육평가’, ‘교육방법’, ‘인식도’, ‘방향성’으로 158개의 논문을 다시 분류하였다. 이 중 62개의 논문이 5개의 세부주제에 해당하였으며, 선정된 62개의 논문 중 10개는 2개의 주제에 대하여 중복으로 분류되었다. (Fig.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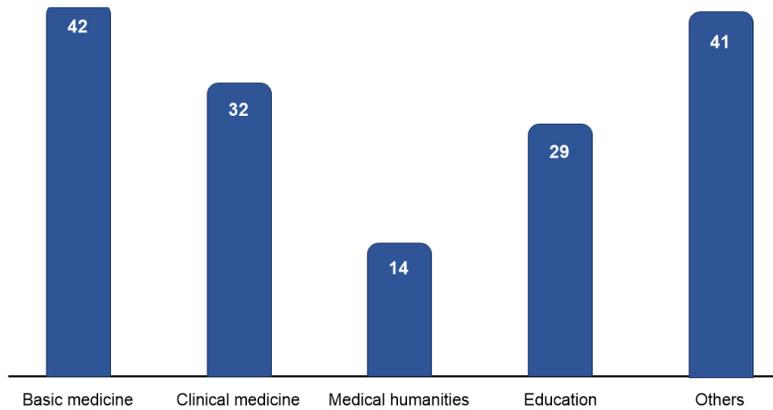


Fig. 4. Categorized into five categories: basic, clinical, medical humanities, education and other papers on Korean Medicine Edu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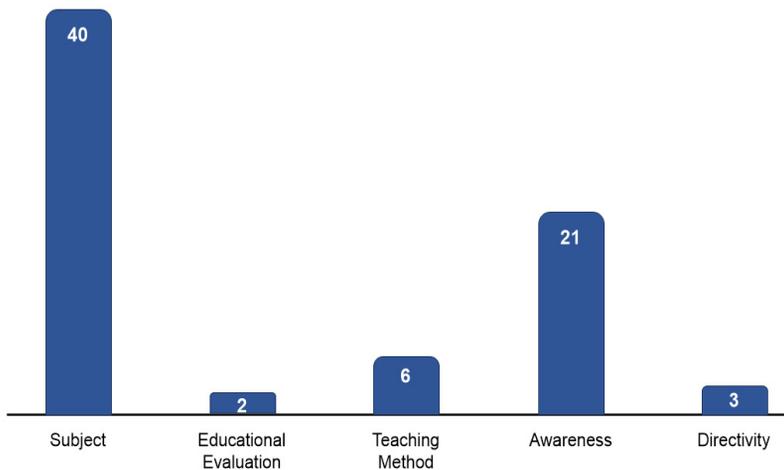


Fig. 5. Classification of selected papers with a focus on Korean Medicine Education.

먼저 ‘교과목’의 경우 총 40편의 논문이 분류되었고 이 중 원전학 교육 관련 논문이 9편이고 의료윤리, 기공학, 본초학 교육 관련 논문이 각각 4편이며 경혈학, 의사학 교육 관련 논문이 각각 3편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부학, 한문 교육 관련 논문이 각각 2편 있었고 이외에 병리학, 생리학, 예방의학, 의료정보학, 의생명과학, 인문사회의학, 진단학, 한의학입문, 기초한의학 교육 관련 논문이 각각 1편 존재했다. 다

음으로 ‘교육평가’의 경우 총 2편의 논문이 분류되었고 모두 한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인증에 대한 고찰 연구였다. 다음으로 ‘교육방법’의 경우 총 6편의 논문이 분류되었고 교육방법론에 관한 연구가 5편,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가 1편 존재했다. 다음으로 ‘인식도’의 경우 총 21편의 논문이 분류되었고 교육방법에 대한 인식 연구가 5편, 한의과대학 학생들의 교육만족도 및 인식에 대한 조사 연구가 4편 있었다. 또

한 타 직종 종사자의 한의학교육, 본초학 교육, 의료 윤리 교육에 대한 인식도 조사가 각각 2편 있었다. 이외에도 교육과정, 경혈학 교육, 기공학 교육, 원전학 교육, 한의학입문 교육, 교육현황에 대한 인식도 조사가 각각 1편 존재했다. 마지막으로 ‘방향성’의 경우 총 3편의 논문이 분류되었고 한의학 교육과정 에 대한 연구가 2편, 한의학교육의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가 1편 존재했다.



5. 한의학 교육 논문의 단어 빈도별 분석

한의학 교육 연구의 동향을 가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국문 제목을 대상으로 단어 빈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통상적으로 언급되는 ‘교육’, ‘한의학’을 비롯하여 ‘입상’, ‘만족도’, ‘현황’, ‘교육과정’, ‘분석’, ‘조사’ 등의 단어가 많이 집계되었다. (Fig. 6)

Fig. 6. Analysis of the frequency of words appearing in the title of a paper (more than 5 times)

학습법에 대한 통찰이 이루어지는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추측된다. 대한예방한의학회에서는 시대적 상황에 적합한 연구개발 및 학습자의 교육만족도 조사 연구가 많이 시행된 점, 대한한의학원전학회에서는 ‘황제내경’, ‘상한구십론’ 등과 같이 고서에 기반한 과거의 교육방법을 현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 관련 자료 편찬에 관심이 있는 점¹³⁾, Integrative Medicine Research에서는 국제적인 의학교육의 표준에서의 한의학교육의 방향성¹⁴⁾, 한의학교육과 해외의 전통의학 교육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한 한의학교육의 발전을 추구하는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¹⁵⁾

고찰

첫째, 한의학 교육 관련 연구는 연도별 분류 집계를 통해 199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특히 2020년 이후 매년 10편 이상의 논문이 발표되는 등 최근 한의학 교육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2020년 초반에 시작된 코로나 19의 확산 이후, 한의학 교육에서 비대면 교육 등 다양한 교육방법을 채택하며 교육방법론에 대한 체계적인 고찰 및 새로운 학습방법을 도입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¹⁰⁾

연도별, 학술지별 분석을 통해 최근 한의학 교육 관련 연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다양한 학술지에 산발적으로 발표되고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Korea Citation Index(KCI) 등재후보학술지 또는 KCI 등재학술지 수준의 한의학 교육 전문 학술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23년부터 발간하기 시작한 한의학교육학회지의 경우 10여개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선정한 검색 데이터베이스에 색인되지 않아 누락되었고, 최종 분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추후 한의학 교육 관련 전문 학술지가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술지의 경우 동의생리병리학회지, 대한한의학회지, 대한예방한의학회지,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Integrative Medicine Research 등에 집중적으로 게재되었다. 대한한학회에서는 한의학의 전반을 아우르며, 학습자의 능동적인 교육 평가¹¹⁾ 및 기초한의학 교과목의 교육과정 개선방안¹²⁾ 등 교육학 관련한 연구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점, 동의생리병리학회에서는 다방면으로 한의학 기초분야에서의 발전을 통해 한의학의 현대화를 지향하는 만큼 기초분야의

셋째, 대표 주제별 분석에서는 한의학교육평가원에서 제시한 용어를 기반으로 한의학 교육 연구의 동향을 ‘한의학기초’, ‘임상의학’, ‘의료인문학’, ‘교육학’의 영역으로 살펴보았다. ‘한의학기초’ 연구의 경우 각 교과목별 학습방법, 교육현황, 학습자의 교육요구도 및 만족도에 관한 설문조사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¹⁶⁾ ‘임상의학’ 연구 역시 기본적으로 실습 교육에서의 방법론이 높은 빈도로 나타났고¹⁷⁾ 공중보건한의사 및 한방병원의 한방수련의에 대한 임상 교육 효과에 대한 연구들도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¹⁸⁾ ‘의료인문학’의 경우 인문사회학의학 교육에 대한 현황조사¹⁹⁾, 의료윤리 교육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들이 주로 분석되었다.²⁰⁾ ‘교육학’의 경우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²¹⁾에 대한 고찰²¹⁾, 한의학교육인증평가에 대한 고찰²²⁾ 및 한의학 교육의 발전을 위한 제언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²³⁾ 이외에 ‘기타’로 분류된 연구들은 근대부터 이루어진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한의학 교육에 관한 시대적 흐름과¹⁾ 한의학 학습자들의 전반적인 만족도 및 학업 스트레스에 관한 내용⁸⁾, 국제적인 의학 교육 추세에서의 한의학 교육의 동향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²⁴⁾ ‘한의학기초’, ‘임상의학’, ‘의료인문학’, ‘교육학’의 네 분류가 공통적으로 학습자의 반응을 토대로 연구를 진행한 점에서, 보편적으로 한의학 교육 내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심을 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의료인문학 분야의 연구가 부족해, 추후 해당 분야의 연구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연구진에서 합의한 세부 주제로 분석한 62개의 논문 중 10개의 논문은 5개의 세부 주제에 대하여 하나의 세부 주제에만 분류되지않고 2개의 세부 주제에 중복 분류되었다. ‘인식도’와 ‘교과목’에 해당하는 논문이 6개이고 ‘인식도’와 ‘교육방법’에 해당하는 논문이 4개로, 모두 인식도를 조사한 연구로 나타났다. 이는 세부 주제로 분석된 논문의 대부분이 연구방법으로 설문조사를 활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교과목’에서는 원전학 교육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원전학 교과목에 대해 학습자가 원전학의 교육이 임상에서의 상호 연계가 많이 떨어지고, 암기 위주의 교육방식으로 인한 학습자의 불만족을 지적하였는데,²⁵⁾ 이로 인해 타 교과목에 비해 능동적인 원전학 교육의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가 많았던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원전학 교육이 기존의 원전학습에 머물러있지 않고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Flipped Learning)²⁶⁾과 같이 다른 교육방법을 교육에 적용해보고 평가하는 등 원전학 교육에 있어서 꾸준히 발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확인할 수 있었다. 본초학 교육 역시 끊임없이 교육과정 개편을 위한 시도들이 존재하였고¹²⁾ 특히 본초학의 시험에 있어서, 다양한 문항개발 연구 및 학업역량을 측정하는 새로운 방법들에 대한 논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²⁷⁾ 경혈학 교육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학습방법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특히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학습방법의 적용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진행됨을 확인할 수 있다.^{28,29)} 이는 최근 한의학 교육현장에서 Computer Based Training(CBT), Learning Management System(LMS)의 도입 등 고등교육 전반에 ICT기술을 응용한 새로운 학습법에 대한 요구도의 증가의 다른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³⁰⁾

다음으로 ‘교육평가’에 대하여는 2건의 연구가 존재했는데 모두 한국한의학인증평가원의 2주기 한의학교육 평가인증에 대한 고찰을 진행한 연구였다. 2건의 연구 모두 평가주체의 다양성에 대해 지적했는데 한의학계 이해종사자의 평가뿐만 아니라 학습자 및 교육 전문가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었다. 특히 세계의학교육연합회(World Federation for Medical Education, WFME) 인증기준의 한의학교육 적용가능성 및 보완할 점에 대한 연구에서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학생평가와 프로그램 평가를 강조하였다.³¹⁾ 이에 향후 있을 한의학교육평가인증에서는 학습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각도에서의 적용이 필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교육방법’의 항목에서는 한의학교육에서의 새로운 교수법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의과대학의 경우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 (Accreditation Standards of KIMEE 2019)을 발표하여 학습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시대적인 요구에 맞게 한의학교육 역시 다양한 교수법의 적용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었다.⁷⁾ 문제바탕학습법(Problem Based Learning, PBL)³²⁾, Flipped Learning³³⁾, Team Based Learning(TBL) 등 여러 교과목에서 학습자 참여 중심 교육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관찰되었다. 또한 KAS2022의 임상실습 시간 확대 및 역량중심 한의학교육으로의 전환에 따른 실습교육의 교수법도 대두되고 있다. 기존의 OSCE, CPX^{34,35)}에서 더 나아가 최근에는 한의학 고전에 근거해 임상의학의 특성을 반영한 표준화환자(Standardized Patient, SP)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임상실습 교육에 적용하려는 시도들도 관찰되고 있다.³⁶⁾ 이외에도 근거기반의학(Evidence Based Medicine, EBM)에 입각한 한의학 교육의 표준화 및 과학성 확보 등³⁷⁾ 다방면에서 한의학교육의 현대화에 힘을 쓰고 있다. 전반적으로 고등교육에 사용되는 다양한 교수법을 ‘한의학교육’에 적용하려는 시도는 상당히 고무적인 접근이나, 그 효용성에 대한 연구의 수가 타 학문의 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기존의 ‘교육방법’ 연구들 역시 소수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이기에 교수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추후 한의학의 특성을 반영한 실용적인 교수법의 개발 및 향후 연구에서는 많은 대상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한의학교육의 주체는 한의과대학, 한의과전문대학원의 학생들이다. 이에 일차적으로 한의학 교육의 끊임없는 발전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비판적인 사고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인식도’ 연구들 역시 이점에 유의하여 한의학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의 반응을 통해 한의학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한의학교육 전반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만족도 연구⁸⁾, 특정 교과목의 새로운 교수법 도입에 따른 학생들의 인식조사³³⁾ 등 다방면에서 학생들의 ‘인식도’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인식도’ 연구의 경우 주로 설문조사의 방식으로 진행되기에 응답자의 표본에 대한 대표성 문제가 항상 제기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한의학교육을 받는 학습자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한 유의미한 연구결과 및 응답자의 대표성을 확보한 후속 연구들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의학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 연구에 대해 살펴보면 3편의 연구 모두 2004년 이전에 발표된 논문들로^{21,23,38)} 20년 후인 2024년에는 활용하기 어려운 기본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추후 현재 실정에 맞는 ‘방향성’ 연구들이 더 많이 발표되어야 한다. 특히, 실제 한의학 교육의 중심에 있는 교수자들의 경험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을 통해 교육의 발전방안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는 것 역시 한의학교육의 방향성 확립에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다섯째, 한의학 교육 관련 연구는 단어 빈도별 분석을 통해 한의학 교육 연구의 동향과 연구들이 다방면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통상적으로 언급되는 ‘교육’, ‘한의학’ 이외에도 ‘임상’ 영역에서의 연구들이 높은 순위로 집계되는 것이 KAS2022 및 학생들의 역량중심 임상 교육 요구도의 증가에 따른 결과¹⁷⁾라고 생각된다. 또한 ‘만족도’, ‘인식’, ‘현황’, ‘조사’ 등의 단어가 다빈도로 나타나는 것은 한의학 교육의 평가도구로 학습자 및 교수자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³⁹⁾에 의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최근 의학 교육 연구동향⁴⁰⁾과 비교해보자면 의학교육, 한의학교육 모두 연구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의학교육 연구의 경우 KCI 단일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2014년부터 2023년 사이에 발간된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217개의 논문이

연구에 활용되었다. 연도의 제한 없이 국문부터 영문, 중문의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나온 158개의 한의학교육 연구에 비해 연구의 양이 절대적으로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한의학 교육 관련 연구가 보다 더 활발히 실시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학회지별 분석에서도 차이가 드러나는데, 2014년부터 10년간 의학교육 논문이 가장 많이 투고된 학회지는 ‘의학교육논단’이다. 해당 학회지는 KCI 등재 학술지로 10년간 약 70여개의 의학교육 관련 연구가 발표되었다. 현재 한의학의 경우 교육 전문 학술지가 활성화 되지 않아 여러 분야의 학회지에 산발적으로 연구가 발표되는 점을 고려하면, 추후 한의학 교육을 핵심적으로 다루는 전문 학회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외에도 의학교육에서는 한의학교육과 유사하게 교육 인식도와 학생 만족도 분야의 연구가 꾸준히 수행되고 있었다. 또한, 테크놀로지활용학습이나 플립러닝 등의 교육방법 분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이는 한의학교육과 마찬가지로 학습방법에 있어 새로운 변화와 시도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의학교육이 보다 더 다양하고 세부적인 교육방법을 활용했고, 관련 연구가 48건에 달해 추후 한의학 교육에서도 해당 분야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교육행정’이란 대학 건축 등의 교육환경과 교육정책 등을 비교하는 교육제도, 교육 협회나 병원의 역할을 다루는 교육조직과 교육 재정 등에 관한 주제이다. 의학교육연구는 해당 주제와 관련하여 10년간 13편의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한의학은 이와 관련하여 진행된 연구가 미흡한 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의사소통, 윤리 등과 관련된 의료인문학 주제의 경우, 한의학은 관련 연구가 11건으로 활발히 진행되지 않았다. 반면, 의학교육은 10년간 30편에 달하는 연구가 진행되었음이 확인되어 한의학 교육에 있어 추후 더 많은 교육행정 및 의료인문학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의학 교육 동향을 다룬 곽(2023)의 연구⁹⁾의 경

우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했으나 최종 분석 대상에 포함된 연구의 수가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또한 학술지별 분석에서도 대한예방한학회지(12편), 대한한학회지(11편), 대한한학회지(10편), 동의생리병리학회지(6편)에서 비교적 많은 수의 논문이 발표되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동의생리병리학회지(19편), 대한한학회지(17편), 대한예방한학회지(15편), 대한한학원전학회지(11편) 순서로 나타나 일부 차이가 있었다. 이는 최종 분석에 포함된 연구가 약 70개가량 차이가 나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보다 많은 교육 관련 연구를 포괄해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했다고 사료된다.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이후에도 보수교육 등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한의사 국가고시 응시 이전의 한의과대학 및 한의과전문대학원의 재학생들은 6년간의 교육과정을 통해 한의학적 사고방식 및 직무수행역량을 기를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한의학 교육은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개인의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을 정도로 전문적이어야 한다. 현재 한의학교육은 KAS2022에 부합하는 임상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연구의 절대적인 개수가 부족하며, 이들에 대한 실효성, 학습자의 평가와 반응 및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적 검토 연구 역시 부족한 상황이다. 한의학교육의 능동적인 발전을 위해 학습자, 교수자, 연구자 등은 한의학교육의 주체라는 의식을 갖고 비판적 사고를 통해 한의학교육의 발전방안에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여 한의학교육이 올바르게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한의학 교육에 관한 광범위한 고찰이 미비한 상황에서 한의학 교육 연구 논문의 동향에서 나아가 시대의 흐름에 맞는 교육방법론 및 교육과정을 재고하였다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 기존의 연구와 달리 해외의 한의학 교육에 관한 연구들을 포함

시켜 국내의 한의학 교육 관련 이해 종사자만의 한정된 시각이 아닌 세계의 전통의학 연구자를 비롯하여 보편적인 대학 교육의 관계자의 시각이 반영된 연구들을 문헌 고찰의 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객관성을 확보하고 한의학 교육이 시대적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에 근거를 제시한 것에 상당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제목과 초록을 통한 키워드 분석 시 5개의 분류군에 한정하여 한의사 국가고시, 한의과대학 재학생의 교육만족도, 의과대학의 한의학교육 등 ‘기타’에 해당되는 연구들의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기타’ 항목의 개수가 많게 나타나는 점 및 2023년 신설된 한의학교육학회의 한의학교육학회지를 본 연구에서 반영하지 못한 점 역시 추후 연구에서는 보완해야 할 과제라고 사료된다.

결론

한의학 교육 관련 문헌고찰을 진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최근 한의학 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KCI 등재후보학술지 또는 KCI 등재학술지 수준의 전문 학술지가 없어 대한한의학회지 등 국내외 다양한 학술지에 발표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한의학교육학회지가 만들어졌으나, 아직 KCI에 등재되지 않은 상태로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잘 노출되지 않아 추후 한의학 교육 관련 전문 학술지가 필요하다.

둘째, 원전학, 본초학 등 일부 교과목은 연구가 활발하지만, 타 교과목에 대해서는 연구의 절대적인 수가 부족하다. 특히, 기초와 임상을 통합한 통합 과목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 질병 중심의 통합적 접근을 통해 기초와 임상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통합 과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과목간 중복성을 최소화해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육 과정을 개선해야 한다.

셋째, 이론 교육과 더불어 실습의 중요성이 강조

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이론적 지식을 실질적인 임상 능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실습 중심의 교육에 적합한 교수법과 평가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한의학 교육 과정의 편성, 학생 평가 및 다양한 교수법에 대한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특히, 새로운 교수법의 개발과 적용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하며, 이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실현하고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교육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교수법의 효용성을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의학 교육의 현대화를 추진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한의학교육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현재 한의학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추후 한의학교육 연구가 더 활발히 그리고 보다 심도 있고 체계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어 한의학교육을 넘어 한의학 전반에 큰 발전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24년도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과제명:전국 한의과대학 통합 6년제 추진방향 고찰 연구).

참고문헌

1. Baek, Y.S. (2017). A Study on the Curriculum of Korean Medical Institute of Higher Education in Modern Times.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30(4), 123-153. <https://doi.org/10.14369/jkmc.2017.30.4.123>
2. Jo, H.J. (2020). Exploring the Condition that will Allow for Change in Traditional Korean Medicine Curricula-Focusing on the Integrated

- Curriculum.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33(3), 68-89. <https://doi.org/10.14369/jkmc.2020.33.3.063>
3. Institute of Korean Medicine Education & Evaluation. Retrieved from <https://www.ikmee.or.kr/>.
 4. Korea Health Personnel Licensing Examination Institute. Study on Improvements for Job-based National Examinations for Doctors of Korean Medicine. (No additional details provided).
 5. Park, H.M. & Sun, S.H. (2021). A Review of WFME2020 Compared to WFME2015 and KAS2020. *Journal of Society of Preventive Korean Medicine*, 25(1), 47-65. <https://doi.org/10.25153/spkom.2021.25.1.004>
 6. Lim, C.I., Han, H.J., Hong, J.S., & Kang, Y.S. (2016). Competency Modeling for Doctor of Korean Medicine & Application Plans. *Journal of Korean Medicine*, 37(1), 101-113. <https://doi.org/10.13048/jkm.16010>
 7. Park, J.J., Lew, J.H., & Yin, C.S. (2021). Competency in Korean Medicine Education for the Skills of Primary Care: Theories and Modalities such as Acupuncture, Chuna, and Herbs Unique to Korean Medicine are the Main Components. *Journal of Higher Educational Research*, 4(1), 1-20. <https://doi.org/10.22838/jher.2021.4.1.1>
 8. Jeong, S.H., Kim, J.P., Kang, U.J., Jeong, H.I., & Kim, K.H. (2020). A Survey of Recognitions and Satisfaction with Education in Traditional Korean Medicine. *The Journal of Oriental Medical Preventive*, 24(3). <https://doi.org/10.25153/spkom.2020.24.3.005>
 9. Gwak, D.W., Kim, M.K., Kwon, J.S., & Yin, C.S. (2023). Trends in Korean Medical Education Research from 2003 to 2022.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History*, 36(1). <https://doi.org/10.15521/jkmh.2023.36.1.089>
 10. Wie, H. & Yang, I.J. (2021). Suggestions for the Development of Online Education at the College of Korean Medicine - Based on the Current Status of Online Education and Satisfaction Surveys due to COVID-19. *Journal of Physiology & Pathology in Korean Medicine*, 35(5), 162-168. <https://doi.org/10.15188/kjopp.2021.10.35.5.162>
 11. Kwon, S., Shin, S., & Lim, B.M. (2012). A Survey of Students' Satisfaction with Education in Traditional Korean Medicine. *Journal of Korean Medicine*, 33(1), 1-11.
 12. Kim, H.J., Choi, C.Y., Kim, C.L., Lee, G.S., Kim, J.H., Lee, S.H., Joo, Y.S., & Hwang, S.Y. (2009). Survey on Revision and Complements for the Current Curriculum of Herbology. *Journal of Korean Medicine*, 30(4), 118-128.
 13. Ahn, J. (2018). A Study on the Educational Meaning of Medical Records Written in Shanghanjiushulun.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31(1), 113-125. <https://doi.org/10.14369/jkmc.2018.31.1.113>
 14. Kyeong, H.K., Ju, A.L., Ho-Yeon, G., Sunju, P., & Sangwoo, S. (2020). Traditional Korean Medicine Education in the World. *Integrative Medicine Research*, 9(2), 100410. [10.1016/j.imr.2020.100410](https://doi.org/10.1016/j.imr.2020.100410)
 15. Lee, H.J., Chae, H., Lim, Y.K., & Kwon, Y.K. (2016). Attitudes of Korean and Chinese Traditional Medical Doctors on Education of East Asian Traditional Medicine. *Integrative Medicine Research*, 5(1), 63-68. [10.1016/j.imr.2015.11.001](https://doi.org/10.1016/j.imr.2015.11.001)

16. Kim, M. & Han, C.H. (2020). A Survey on the Educational Status of Basic Korean Medicine and Basic Medical Science in Colleges of Korean Medicine in 2020. *The Journal of Korean Medicine*, 41(3), 98-124. <https://doi.org/10.13048/jkm.20028>
17. Hwangbo, M. & Park, J.H. (2018). A Study on the Necessity of Strengthening Clinical Practice Education. *The Journal of East-West Medicine*, 43(1), 49-61.
18. So, B.G. & Yoo, J.H. (2023). Analysis of Educational Needs of the Korean Medicine Education Program Related to the Clinical Competency in Primary Care: A Public Health Doctors Survey. *Journal of Higher Educational Research*, 6(1), 225-246.
19. Cheon, M.E., Lim, B.M., & Shin, S.W. (2012). Education of Medical Humanities and Social Medicine in Schools of Korean Medicine in Korea. *Journal of Society of Preventive Korean Medicine*, 16(1), 31-42.
20. Kwon, J.H., Kim, Y.Y., Lee, S.W., & Yoo, J.H. (2012). Study of the Current State and Future Directions of Medical Ethics Education on the Colleges of Korean Medicine in Korea. *Korean Journal of Oriental Physiology & Pathology*, 26(4), 572-576.
21. An, G.S. (1993). Education and Research Status and Directions in Korean Medicine. *Korean Council University Education*.
22. Lee, H.J. (2021). A Study on the Internal Feasibility of Korean Medicine Education Evaluation and Accreditation.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Relations & Interdisciplinary Education*, 1(2), 31-47. <https://doi.org/10.23047/korea-sire.2021.1.2.003>
23. Park, J. (2003). Panel Discussion on the Status and Improvement of Korean Medicine Education. *THE JOURNAL OF EAST - WEST MEDICINES*, 28(3), 5-15.
24. Park, Y.L., Huang, C.W., Sasaki, Y., Ko, Y., Park, S., & Ko, S.G. (2016). Comparative Study on the Education System of Traditional Medicine in China, Japan, Korea, and Taiwan. *Explore (NY)*, 12(5), 375-383. [10.1016/j.explore.2016.06.004](https://doi.org/10.1016/j.explore.2016.06.004)
25. Baik, Y. & Kim, N.I. (2010). A Survey of the Students' Attitude towards The Education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and History in Th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23(3), 111-125.
26. Choi, J. & Kim, Y. (2018). A Study on The Education of Medical Classics through Flipped Learning.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31(2), 1-16. <https://doi.org/10.14369/jkmc.2018.31.2.001>
27. Han, C.S. & Yun, H. (2022). Study on the Herbology Test Items in Korean Medicine Education Using Item Response Theory. *The Korean Journal of Herbology*, 37(2), 13-21. [10.6116/kjh.2022.37.2.13](https://doi.org/10.6116/kjh.2022.37.2.13)
28. Sung, H.K. & Shin, N.M. (2024). Research Trends in Medical Simulation Education Based on Virtual Reality (VR) and Augmented Reality (AR). *Journal of Pediatric Korean Medicine*, 38(1), 78-87. <https://doi.org/10.7778/jpkm.2024.38.1.78>
29. Yang, S.J. & Ryu, C.J. (2021). A Development of an Acupoints Education Table Using 3D Technology and Augmented Reality. *Korean Journal of Acupuncture*, 38(4), 267-274. <https://doi.org/10.14406/acu.2021.036>

30. Naciri, A., Radid, M., Kharbach, A., & Chemsu, G. (2021). E-learning in Health Professions Education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 Systematic Review. *Journal of Educational Evaluation for Health Professions*, 18, 27. <https://doi.org/10.3352/jeehp.2021.18.27>
31. Sun, S.H. (2019). A Comparative Study Among 2nd Cycle of Evaluation and Accreditation System on Korean Medicine Education Global Standards of WFME for Basic Medical Education and WHO Guidelines for Quality Assurance of Traditional Medicine Education in the Western Pacific Region. *Journal of Society of Preventive Korean Medicine*, 23(3), 41-57. 10.25153/spkom.2019.23.3.005
32. Lee, S. (2020). Effect of Problem-Based Learning Program During Basic Korean Medicine Curriculum. *Sangji Korean Medical Journal*, 8(1), 47-56.
33. Park, S., Choi, E., & Kim, S.Y. (2018). A Study on the Korean Medical Students' Perception of Medical Ethics Education Using Flipped Learning. *Journal of Society of Preventive Korean Medicine*, 22(2), 1-12. 10.25153/spkom.2018.22.2.001
34. Sim, S.B., Kweon, J.H., Kim, H.W., Hong, J.W., & Shin, S.W. (2013). Student Satisfaction Study of Clinical Skills Training in Korean Medical Education. *Journal of Korean Medicine*, 34(3), 37-53. <https://doi.org/10.13048/jkm.13011>
35. Sim, S.B., Kweon, J.H., Kim, H.W., Hong, J.W., & Shin, S.W. (2018). Evaluation of the Implementation of 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 in Korean Medicine Education. *Korean Journal of Oriental Physiology and Pathology*, 32(1), 51-61.10.15188/kjopp.2018.02.32.1.51
36. Jo Hak-jun, Jo Na-young. Developing a Standardized Patient Program Using Internal Damage Fever Cases in Korean Medical Education.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2020; 33(4), 33-56. <https://doi.org/10.14369/jkmc.2020.33.4.033>
37. Leem, J., Kim, Y., Heo, J., Jung, M., Kim, S., Lee, H., Park, J.H., & Kim, T.H. (2017). Experiences, Perceptions, and Needs on the Education of Evidence-Based Medicine Among Korean Medicine College Students: A Nationwide Online Survey. *European Journal of Integrative Medicine*, 15, 10-16. <https://doi.org/10.1016/j.eujim.2017.09.001>
38. Lee, S.D., Han, Y.J., & Shin, K.W. (2004). Ways to Educational Improvement of Korean Oriental Medicine. *Journal of Society of Preventive Korean Medicine*, 8(2), 99-113
39. Lim, H.N. (2017). A Study on Improvement Measures for Higher Education Evaluation System in Korea.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Retrieved from <http://www.kedi.re.kr>.
40. Han, Y.J. (2024). Medical Education Research Trends and Management Implications. *Health Service Management Review*, 18(1), 39-53.

ORCID

김서연 <https://orcid.org/0009-0003-7165-9769>

이도현 <https://orcid.org/0009-0004-4678-2930>

정혜인 <https://orcid.org/0000-0002-3651-9678>

김경한 <https://orcid.org/0000-0003-4868-9145>

이승희 <https://orcid.org/0000-0001-8672-5253>